

전북교육청, 추경예산안 도의회 제출

고교 무상교육 · 미세먼지 예방 · 학교환경개선 등 4367억원 규모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지난 3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등을 포함한 중앙정부예산 수입 3,719억 원 ▲지방자치단체예산 수입 270억 원 등 본예산 3조 4,001억 원 대비 총 4,367억 원(12.6%) 늘어난 3조 9,058억 원 규모이다.

추경예산안 편성 기본 방향은 ▲정규직 및 계약제교원 인건비 조정분,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을 통한 인건비 부족분 등 의무지출경비 반영 ▲미세먼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실내 체육

시설 확충과 공기정화장치 지원, 학교 급식 기구 및 시설 개선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냉·난방시설 개선, 내진보강 및 안전간간 설치 등 학교 교육환경 개선 ▲목적지 지정되어 그대로 반영해야 하는 목적지정 예산과 본예산 편성 후 추가 발생된 재정수요 등을 반영하여 편성했다.

주요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학교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 실내 체육시설 조성, 공기정화장치(공기청정기 및 공기순환기) 보급, 학생안전체험 및 수련 시설 확충 등 학생 건강 및 안전 확보를 위해 682억 원 ▲무장애 통합놀이

공간 구축, 학교운동부 훈련 여건 개선, 예술교과실 및 보건실 현대화, 특성화고 환경 개선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19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규직 및 계약제교원 증감과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등에 따른 인건비 217억 원 ▲학교 신설, 시설안전 및 노후시설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과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시설 1,303억 원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한 지방교육채 상환 1,467억 원을 반영했다.

특히 2학기부터 시행되는 고교 무상교육 실험을 위해 3학년 학생에 대한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79억 원, 유

아교육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 급식비 지원 37억 원, 에듀파인 도입 사립유치원에 시스템 여건 조성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예산 5억 원을 편성하였고, 안전체험센터 지정·운영 등 특별교부금 사업 190억 원, SW교육 선도학교 운영 및 관리 등 국고보조금 사업 5억 원, 도시지역 무료급식 지원 등을 위한 자치단체 전입금 사업 33억 원 등 목적지정 예산 230억 원을 반영했다.

한편 이번 제출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오는 13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제363회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당복초, 진로 체험의 날 학부모 교육기부 '호응'

당복초등학교(교장 권영숙)에서는 지난 3일 '진로 체험의 날(부제: 학부모 교육기부의 날)'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학부모, 지역 사회의 교육 기부를 활용해 학생들이 진로를 탐색하고 직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학생들의 전인적 건강 증진을 추구하는 건강증진학교 거점학교답게 듣고,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오감 탐구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계획 단계부터 교사, 재능기부 학부모, 방과후강사, 지역사회 교육기부자가 상호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열정적으로 진행했다.

프로그램은 저학년(1~3학년)을 대상으로 한 학부모 교육기부 프로그램과 고학년(4~6학년)을 대상으로 영두 콘공예, 키즈 필라테스(현대무용, 다 함께 컷타 연주하기 등 8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운영됐다.

학부모 교육기부 프로그램으로 운영된 저학년 학생 대상프로그램은 3가지씩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학급별로 번갈아가며 체험하는 방식으로 교육공동체가 자녀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위해 노력했다.

방과후 및 지역사회 교육기부 프로그램은 고학년 학생들이 무학년제로 마련된 미술공예, 그래픽, 중국어, 탁구, 군인, 소방관으로 이뤄진 6개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대해 스스로 선택해 체험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권영숙 교장은 "학생들의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행복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자신의 끼와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와 정음시가 진행하고 있는 '정음 김명관 고택의 향기를 찾아서'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다양한 체험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가치 일깨운다

전북대 한옥체험교육, 장애학생 새 대안교육으로 '각광'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와 정음시(시장 유진섭)가 문화재청 생생 문화재사업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정음 김명관 고택의 향기를 찾아서' 프로그램이 초·중·고교생 뿐 아니라 장애학생에게까지 교육을 확대하며 새로운 대안교육이 되고 있다.

오는 11월까지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지난 4월 일반인과 장애학생들로 구성된 대안학교인 전주 토기장이 학교 학생들이 다양한 한옥 체험 교육을 받았다.

이들은 김명관 고택의 건축이야기를 비롯해 한옥체험, 정음의 명품건축 답사, 한옥 익히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돕고 함께 체험하는 모습을 보여 큰 기쁨을 안겨줬다.

특히 일반 학생들과 장애학생들이 다양한 체험으로 어우러지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일깨워 주는 등 체험교육으로 하나 되는 시간이 됐다.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들도 이런 교육이 있는지 몰랐던데서 이후에도 계속 신청해서 장애학생들이 일반 학생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특히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전북대 한옥기술종합센터에서는 이 사업 이외에도 고창권 퍼스에서 자폐증상을 가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옥교육을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센터에서는 장애학생들이 다양한 체험 교육에 신청할 경우 이들을 위한 교육을 따로 편성하는 등 교

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남해경 센터장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옥을 통한 다채로운 체험 교육을 해보니 많은 긍정적 효과가 있어 파생했다"면서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육을 확대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싶고, 특히 대학과 지역사회가 한 길을 가는 교육공동체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명관고택 프로그램은 정음 김명관고택을 대상으로 이 한옥 건축물이 담고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한옥체험과 생각 나누기, 문화재 보호활동 등을 1박 2일로 진행하고 있다. 전북대가 4년째 운영하고 있으며, 3년 연속 최우수 교육과정으로 선정돼 문화재청상을 수상한 바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청년 기업가 양성 창업캠프 진행

전주대학교 LINC+사업단 창업교육센터에서는 최근 남원 컨스텔 리조트에서 '2019 JJ Startup Boot Camp'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주대 재학생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2019 JJ Startup Boot Camp'는 청년 CEO의 기업가정신 특강 및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 사업계획서 작성 실습 및 팀별 전문가 멘토링 등의 창업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학생들은 창업의 주요 과정을 직접 실습하며 멀게만 느껴졌던 창업을 하나씩 시행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캠프의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창업 경진대회도 열렸다. 경진대회에서는 김정기(전기전자공학과), 김정훈(산업디자인학과), 김수현(산업디자인학과), 공남희(산업디자인학과) 학생 팀이 '아이들을 위한 북악 도우미'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대상을 수상



했다. 그 외 일회용 앞치마, 현악기 사용자들을 위한 휴대용 반영구 실리콘 패치, 운동 메이트 플랫폼 등의 아이디어가 제시되기도 했다.

한편, 전주대 창업교육센터는 재학생 대상으로 창업교육 강좌를 개설 및 운영하고 있으며 창업 동아리를 비롯하여 창업희망 학생의 창업지식 습득을 돕는 각종 창업캠프 및 창업경진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국어문화원, 전북도 우리말 가꿈이 5기 출범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북도청이 공동 주최하고 전주대학교 국어문화원이 주관하는 '2019 전라북도 우리말 가꿈이'가 지난 3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우리말 가꿈이란 바람직한 한글문화 전파와 한글의 가치 실현에 앞장서는 사회공헌활동 동아리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범국민 언어문화개선 운동'의 일환으로, 전북도에서는 2015년 1기를 시작으로 올해 5기가 출범했다. 전라북도 우리말 가꿈이 5기는 도내 대학생과 중·

고등학생, 일반인으로 구성됐으며, 올 한해 동안 도민을 대상으로 바르고 아름다운 언어문화를 정착시키는 홍보 활동을 펼치게 된다.

안동환 전북도 문화예술과장은 "우수한 문화유산인 우리 한글을 더 소중히 여기고,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일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주대에서 출범식을 마친 전라북도 우리말 가꿈이는 15일 세종나신 날을 홍보하기 위해 12일 2시부터 한옥마을 일대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강화... 권리 인식 기대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2019년 도내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동인권교육은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인식하고 행복한 노동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 관련 참여 사례 및 구제방안을 제시해 학생들의 노동 권리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반계 국·공·사립교 106교와 공립 특성화고 19교 등 총 124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하며, 노동인권교육 강사의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노동인권 학생 연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을 운영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에 앞서 지난 3일 전주를 비롯한 군산, 익산, 완주 소재 고등학교 63교를 대상으로 담당교사 연수를 마쳤으며, 그 외 지역 61개교는 7일 오후 3시 전북 학생인권교육센터 2층 인권교육실에서 노동인권교육 담당자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다양한 노동관련 사례를 통해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권리의식을 함양해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학생들이 노동인권 감수성을 키워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